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9]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하노니 5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6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함: 삶과 믿음의 기초. 이것이 어떤 결과가 뒤 따라 올지라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첫 시작에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도시는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문화를 반영했습니다. 우리 모습과 같이 모든 종류의 타락을 담고 있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사표현함으로 시작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나타내기보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탕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향한 감사가 아닌 불행과 소망 없는 곳에서 우리를 꺼내 그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했던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던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시다 우리의 저주받은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고린도전서 1:2).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구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받아들여졌고 용서받았고 회복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2,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든 방법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 분께서는 선한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지어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지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진정한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회들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수단: 말씀 설교, 성찬, 공부, 묵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것.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죄와 싸우는 전쟁: 순종을 통해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식의 풍성함: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알고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지 알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관한 해답을 압니다. 대화의 풍성함: 예수님과 구원은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3,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굳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 계시며 그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이 세상속 우리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토록 부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현실의 삶이 은혜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빼앗아 가

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한 사실과 확신은 언젠가 선명하게 바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흠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 현재의 문제들은 가볍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영원성의 맥락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개개인들의 모든 경험을 압도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엄청나게 가치 있고 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정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시고 확증해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의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해주신 것들에 우리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승리로 인해 보장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